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강건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첫날맞이 월삭예배
오늘 주일 예배(9.1)는 첫날맞이 감사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성찬예식 / 배종위원 : 이광근 안수집사, 한승훈 목사)

3. 교단 평신도 주일 및 가을맞이 특별새벽기도회
다음 주 주일 예배(9.8)는 평신도주일로 지킵니다 (특송 : 집사, 권사).
다음 주간 새벽예배는 가을맞이 특별새벽기도회로 지킵니다(9/9~14).

4. 어린이 예배 장소(교육관 오후 1시)
교육관에 새 영상장비가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교육관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5. 청소년 예배 (본당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첫 모임 9월 21일)

6. 아하브 코업(홈스쿨) 수업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주제 : "세계의 명절" 각 가정별 조사 후 발표회

7. 담임목사 가정 휴가일정
2024년 9월 2일(월) ~ 7일(토) 담임목사 휴가일정을 갖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자율로 주보의 본문과 같이 드립니다.

8. 2024년 9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7.29 ~ 8.28)*
9.05(목) 정태현 9.13(금) 한태민 9.20(금) 김라라 9.21(토) 오지현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9/01	합 심 기 도
09/08	김혜숙 권사
09/15	정애자 권사
09/22	박제연 집사
09/29	이광근 안수집사
10/06	임명자 집사
10/13	임명숙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9/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2~07	담임목사 가정 휴가
09/03	아하브 코업 수업 (오전 11시)
	"세계의 명절" 각 가정별 발표회
09/08	평신도주일
09~14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09/15	추석 명절맞이 감사예배 (16~18)
09/22	순교자 기념주일
09/26	한국순교자기념관 / 소래교회
09/29	선교 헌신예배
10/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10/06	태신자 작정 주일(1)
10/13	태신자 작정 주일(2)
10/20	태신자 작정 주일(3)

주일 차량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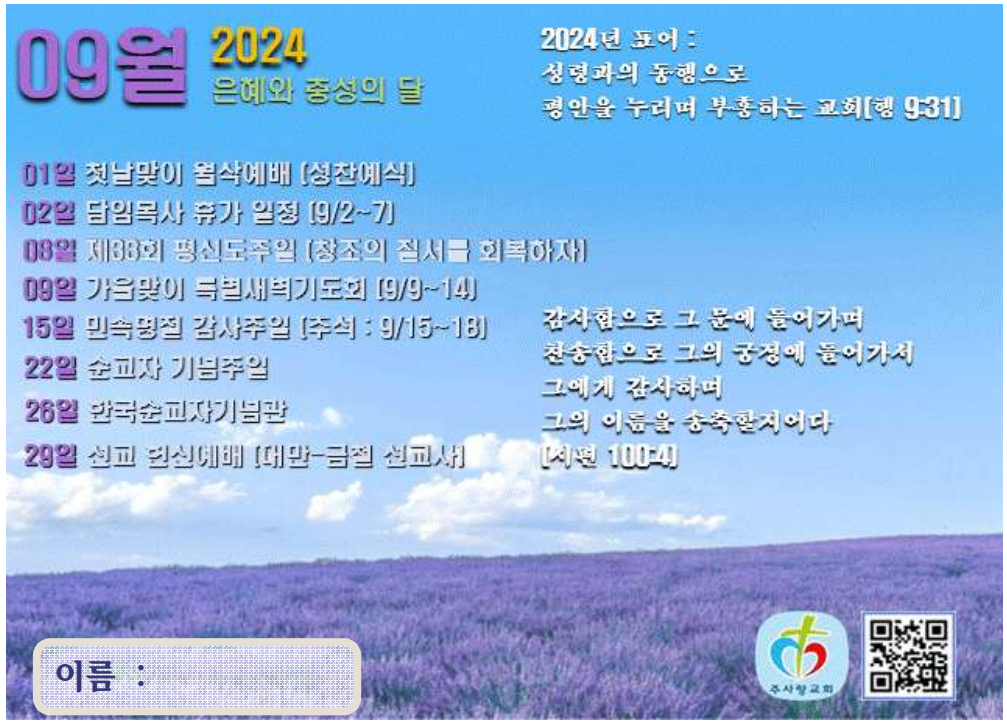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5: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7권 35호 | 2024년 9월 1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다섯 번째 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첫날맞이 월삭예배 – 성찬예식) 인도:집례자

※ 묵 도 ····· 이사야 60:1~3 ····· 인 도 자

※ 찬 송 가 ····· 찬 1장 ·····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성시교독 ····· No.71. 이사야 55장 ····· 인도자/회중

찬 송 가 ····· 찬 150장 ····· 다 같 이
(갈보리 산 위에)

대표기도 ····· 다 같 이

성찬예식 ····· 찬 227장 ····· 다 같 이
(섬김 : 이광근 안수집사, 한승훈 담임목사)

성경봉독 ····· 갈라디아 6:1~10 (신 309)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말씀인도 ····· 서로의 짐을 지라 ·····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 찬 401장 ·····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희 어린이)

※ 축 도 ·····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문동잔·임명자 한태민 한승훈·임명순 / 임명순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감사헌금 : 고예순 이광근·박제연 전복순 한승훈·임명순 / 정청재 정지윤 한승훈
차량헌금 : 김혜숙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노아방주 : 한태민 한승훈 임명순 은총 이광근 박제연 재우 재희 재아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소망세광교회 안양중앙교회 희망찬교회
성 미 : 임명숙(10kg) 장시라(20kg) 정애자·정청재(10kg)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 경배와 찬양 ····· 아하비찬양단
대표기도 ····· 맡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1:1~12 (구 560)
말씀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하비찬양단
성경봉독 야고보서 2:1~10 (신 372)
말씀제목 차별 없는 온전한 사랑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 가족예배로 ····· 가정별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상 11:14~25 (구 531)
대표기도 ····· 자녀들 중
말씀제목 솔로몬의 대적자가 생긴 이유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경배와 찬양 ····· 아하비찬양단
성경봉독 마가복음 7:1~8 (신 64)
말씀제목 헛된 경배, 공허한 인생

새 벽 기 도 회

새벽5:30 (담임목사 휴가)

9/1(일)	왕하 1:1~12	하나님을 경외하라
2(월)	왕하 1:13~18	겸손한 순종의 기쁨
3(화)	왕하 2:1~14	끝까지 순종하는 종
4(수)	왕하 2:15~25	통찰과 권능과 도덕성
5(목)	왕하 3:1~12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6(금)	왕하 3:13~27	반쪽 신앙은 금물
7(토)	왕하 4:1~17	감찰하시는 하나님
8(일)	왕하 4:18~37	믿음이 준 소망과 용기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선한충성교회)

장우정 목사(예정)

선한충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재희·재아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혜도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캠퍼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운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인터콥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가정 총회 향존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경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⑧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중에서 느헤미야 11장 11절의 아사라를 가리키는 인물로 아히둡의 5대손인 인물은?** (대상 9:10~11)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 )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⑨ **사울 왕가의 비극적인 최후의 죽음과 그의 오해는 무엇인가요?**(대상 10:4~5)
사울이 자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 )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 )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자살을 선택)

⑩ **사울 왕가의 패망과 죽음의 신학적 이유는 무엇인가요?**(대상 10:13~14)
사울이 죽은 것은 ( )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 )에게 넘겨 주셨더라

⑪ **다윗이 하나님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대상 11:1~3)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 )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 )가 왕이시었고 ( )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 )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 )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 )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 )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⑫ **다윗 초기 왕국의 전초 기지로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성읍은?** (대상 11:4~5)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 )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 )이더라

⑬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참 다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외적증거는?** (대상 11:9~10)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 )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 )대로 함이었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4-35주 / 역대상 5장 ~ 11장

① **르우벤 지파가 야곱의 12지파 중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지 못한 이유와 결가는?** (대상 5:1~2)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　　)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　　)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　　)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

②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편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던 이유는?** (대상 5:19~20)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　　)께 (　　)하고 (　　) 하나님이 그들에게 (　　)하셨음이라

③ **동므낫세 반지파가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망한 이유는?**(대상 5:25)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　　)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　　)들을 (　　)하듯 섬긴지라

④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지파로서(출 32:4)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언약의 회복을 위한 속죄제를 맡아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지파는?** (대상 6:1)
(　　)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⑤ **역대상 7장의 족보에는 재앙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의 재건의 약속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 암울한 시대의 새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인물은?** (대상 7:27)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　　)더라

⑥ **기브온 족보 중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인물은?** (대상 8:33~34)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　　)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　　)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⑦ **유다 왕국의 패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대상 9:1~2)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　　)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향기로운 신앙 : 대한민국 전설의 만학도 공근식 씨

3형제 중 장남이었던 공근식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7살부터 부모님의 수박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두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어머니와 농사를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을 훌쩍 넘긴 공근식 씨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당시 대전시 대흥동에 있는 <성은야학>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카이스트(KIST) 대학원생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배운 공근식 씨는 30대 중반이 넘어서 배재대학교 전산전자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배재대학교 교수는 공근식 씨가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다며 카이스트(KIST)에서 수업을 2년간 청강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공근식 씨의 동생들은 "형의 학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형의 러시아 유학을 추진했습니다.

공근식 씨는 41살에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에 입학했지만, 러시아어가 너무 어려워 유급을 당하고 한국에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귀국한지 3개월 후 러시아에 돌아온 공근식 씨는 혼자 사전을 찾아가 번역해 가며 러시아어를 마스터 했고, 전과 후 47살에 <MIPT 항공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의 논문은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러시아 항공과학업계 월간지 표지 모델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22년 그의 나이 53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근식 씨의 인간 드라마는 러시아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잡지 5월호에 표지인물로 선정되어 12쪽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공근식 씨는 우리나라가 극히 취약한 극초음속(hi-hypersonic)분야를 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 분야에 대해 항공 미사일분야 필수 기술인 마하 30~100 미만의 플라즈마 현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에 와서 보니 모든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해외로 나가면 자신에게 맞는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박 농사꾼 공근식

성은야학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435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맡 은 이
성경봉독	왕상 11:26~43	맡 은 이
말씀인도		맡 은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기도	찬 420장	맡 은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BC	연대표	Bible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971	솔로몬의 통치(~BC 931)	왕상 1~11장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931	북조 1대 왕 여로보암(BC 913)	왕상 11장

■ 들어가는 말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만 남기고 솔로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솔로몬의 대적인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이 더 이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시삭이 바로로 있는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시삭은 솔로몬과 딸을 결혼시키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바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BC 945년경에 왕위에 오르며 제22왕조의 창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몇몇 지역에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는 사업을 시작함으로 이집트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시리아와 팔레스틴에 대한 이집트의 주도권을 확장하는데 강한 집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카르나크에 있는 비문에 따르면, 시삭은 925년에 팔레스틴을 침공했고, 므깃도에 있는 돌기둥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려는 시삭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대적자 여로보암을 지원하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개입하고 시행하실까요?

첫째, 은혜로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은 다른 대적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며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입니다(26). 또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스레다가 고향입니다(왕상 11:26). 다시 말하자면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손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인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27). 하나님은 솔로몬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던 솔로몬의 대적으로 여로보암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궁의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 보수공사의 감독으로 맡길 만큼 일처리가 확실하고 충성스러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배반을 당하는 고통은(27~28), 충성스러웠던 젊음의 때를 잊고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에게 잘 어울리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불의는 잘도 용납하면서, 타인의 불편함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히야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행하면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받는 자가 보여할 태도는 겸손과 감사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은 어떠한가요?

둘째, 범죄한 솔로몬을 폐하십니다.

예전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데, 이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북쪽의 열 지파를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솔로몬을 결국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했기 때문이고, 둘째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만연하게 퍼져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지 않고서는 손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와 약속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남유다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만연해진 우상숭배로부터 구별하여 보호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 하나님과 참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임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하는 우리의 사랑이 여전하고 신실한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해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훔치는 소비주의 황금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준엄한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나마 솔로몬 치세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왕권이 지속되는 것은 다윗의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루살렘만은 계속 다윗의 후손이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이 나라를 이방에게 넘겨주지 않고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반이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 결론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언약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항상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며, 인간의 배신을 기꺼이 감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심에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열심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솔로몬의 길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여로보암의 자리에 있다면 순종을 다짐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